

## ‘매직넘버 1’ 남겨둔 SK 잇단 확진에 KT전 취소

코칭스태프 구성 안돼…26일 LG전부터 일정 소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 리그 우승 매직넘버 1을 남겨둔 서울 SK의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KBL은 “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SK-K수원 KT전은 코로나19 여파로 SK의 코칭스태프 구성이 어려워져 연기했다”고 밝혔다. 경기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KBL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코로나19로 선수 엔트리 12명을 채울 수 없거나 코칭스태프 전원 미 구성 시 경기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SK 코칭스태프는 최근 들어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도 양성 반응을 보인 인원이 나오면서 SK는 KT전에서 팀을 지휘할 지도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하지만 SK의 잔여 일정까지는 연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진 후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하는 코칭스태프 인원이 있어 26일로 예정된 창원 LG와 원정경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는 38승11패로 2위 KT(32승15패)에 5경기차로 앞서있다. SK가 남은 5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거나, KT가 한 경기라도 지면 SK의 정규리그 우승은 확정된다. SK가 정규리그를 1위로 마친 마지막 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초기에 종료된 2019~2020시즌이었다. 완전한 ‘정규리그 우승’ 타이틀은 2012~2013시즌이 마지막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감독님 복귀하면 바로 30분 뛸게요” 격리중에 문자 보낸 이대성의 속내

DB전 31분간 24점 뽐내고 역전승 견인  
“교체되지 않고 뛰고 싶어 30분 약속”



이대성

고양 오리온 가드 이대성(32)과 강을준 감독(57)의 은근한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 신경전은 아니다. 한 팀에서 동고동락하며 쌓이는 에피소드 정도다.

이번에도 각별한 사연이 있었다. 이대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거쳤다. 그 기간 중 강 감독에게 문자메시지로 ‘격리 중이지만 홈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복귀하면 곧바로 30분 정도 뛸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강 감독은 “몸부터 잘 추스르고 보자”고 답했다.

19일 안양 KGC전부터 팀에 복귀한 이대성은 29분여를 소화하며 20점을 올렸다. 79-80, 1점차 석패를 당했지만 그의 분전으로 오리온은 끝까지 접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21일 원주 DB전에서도 이대성은 31분58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24점을 뽑아 팀의 79-73 역전승에 앞장섰다. 승부처였던 4쿼터를 지배했다. 강 감독에게 보냈던 문자가 호언장담이 아님을 코트에서 증명했다.

이대성은 DB전을 마친 뒤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감독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셨기에 문자로 답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사실 준비를 잘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복귀하면 자주 교체되지 않고 꾸준히 뛰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마음은 40분을 다 뛰고 싶고, 문자도 그렇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날 것 같았다. 스스로 타협하는 선에서 정한 게 30분 정도였다”며 웃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리그 조기종료에 우승 타이틀 놓쳤지만…

## ‘절대 강자’ 현대건설, 역대급으로 빛났다

2위 도로공사와 12점차 앞선 1위  
27경기만에 26승·승점 76 기록  
단일시즌 최다승·최다승점 경신  
리그 첫 단일시즌 두차례10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가 포스트시즌 없이 조기에 종료되자 시선이 쏠린 곳은 현대건설이었다. 폐는 당상처럼 보였던 통합우승의 꿈이 날아갔기 때문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악몽이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2시즌 전에도 코로나19 탓에 리그가 조기에 종료됐는데, 당시에도 1위는 현대건설이었다.

그 때와 차이점은 종료 시점 2위와 승점차다. 2019~2020시즌에는 2위 GS칼텍스와 승점차가 겨우 1이었고, 이번에는 2위 한국도로공사와 12점차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는 역대급으로 강했지만 통산 3번째이자, 2015~2016시즌 이후 6년 만에 노렸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은 멀거품이 됐다.

그래도 기록은 남는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31경기 중 28승(3패)을 수확했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KOVO)이 인정하는 기록은 1~5라운드다. 현대건설은 5라운드까지 승점 80(27승3패)을 쌓았다.

현대건설은 V리그 최초로 단일시즌에 10연승을 2차례 달성했고, 최소경기 20승(21경기) 기록도 세웠다. 27경기만에 26승(1패), 승점 76을 쌓아 2012~



현대건설은 2021~2022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압도적 전력으로 1위를 질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리그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또 한번 우승 없이 시즌을 마쳤다. 그러나 올 시즌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최하위의 수모를 씻고 최소경기 20승을 비롯한 훌륭한 기록을 남기며 역대급 강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스포츠동아DB

2013시즌 우승팀 IBK기업은행(25승5패·승점 73)이 작성한 단일시즌 최다승·최다승점 기록도 넘어섰다. 또 지난달 22일 IBK기업은행을 꺾고 역대 최다인 15연승을 기록했다. 흥국생명도 2019~2020시즌과 2020~2021시즌 두 시즌에 걸쳐, GS칼텍스가 2009~2010시즌 각각 달성한 종전 14연승을 넘어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최하위였다. 달라진 멤버는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강성형

감독과 외국인선수 야스민(미국) 정도다. 지난해 8월 KOVO컵 대회에서 우승하며 선수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리그에서도 가뿐하게 출발했다. 1라운드 6전승으로 선두에 올랐다. 6경기에서 불과 5세트만 내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완벽했다. 2라운드도 무패로 선두를 질주했고,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더 강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2번 패하고, KGC인삼공사에 1번 졌지만 맞설만한 적수가 없었다.

야스민은 해결사였다. 동료들이 “마음먹고 패리면 아무도 못 막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파괴력은 최강이었다. 측면 공격수 정지윤, 황민경, 고예림 등도 힘을 보탰다. 센터 양효진과 이다현은 ‘V리그 최고의 트윈타워’를 구축했다. 센터 김다인의 토스에는 물이 올랐다. 리베로 김연경의 수비는 안정감을 더해줬다. 백업 요원들도 제몫을 해줬다. 현대건설은 그렇게 ‘원 팀’이 돼 절대강자로 군림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꿈수 부리지 않고 늘 긴장하며 보냈던 8년…아쉬움 없다”

흥국생명 떠나는 박미희 감독

“선수들·스태프 덕에 행복한 동행  
오래 믿어준 구단, 가장 고맙다  
아픈 손가락으로 떠난 선수들  
밖에서 보면 달려와 인사해줄지…”



박미희 감독이 8년간의 동행을 마치고 흥국생명에서 작별했다. 21일 GS칼텍스전을 끝으로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박 감독은 성공적이었던 지난 8년을 되돌아본 뒤 “지금까지 편하게 감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어준 구단이 가장 고맙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DB

지나갔다. 매번 한결같이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서 다행이다. 나무만 보던 삶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숲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8년의 감독 생활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시작과 끝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열정적으로 했다. 꿈수 부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은 채 8년을 변함없이 스스로를 긴장시키며 생활했다는 것에서 아쉬움은 전혀 없다.”

-여자 감독으로서 새 역사를 썼는데 뒤를 따

르려는 후배들에게 충고한다면.

“감독은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8년을 믿고 맡겨준 구단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말로 깊이 감사드린다. 선수들도 잘 따라왔다.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춰준 스태프가 있었기에 오래 지낼 수 있었다. 돌아보면 나와 같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춰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선수들에게는 팀을 떠난다고 알렸다.

“따로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선수들은 다 알 것이다. 함께 고생했던 선수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8년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팀을 떠난, 내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선수도 있고, FA(자유계약)로 잘 돼서 간 선수도 있고, 보내기 싫었는데 간 선수도 있다. 나중에 이들이 밖에서 만났을 때 달려와서 인사를 할지 모르겠다.”

-황금 같은 50대 인생을 함께 보낸 흥국생명인데.

“51세에 와서 59세에 팀을 떠난다. 지나고 보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이 더 많았다. 매일 변함없이 호트러지지 않으려고 했다.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식사, 훈련, 미팅 등 모든 약속시간을 지키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살았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한 감독 생활인데.

“어제(21일)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

오면서 애들에게 ‘엄마가 하고 싶은 것 하는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다. 4월에는 가족과 여행도 가면서 쉬려고 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도 하고, 내게도 틀에 박히지 않은 휴식을 주려고 한다.”

-8년간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벗어나면 허전할 텐데.

“그동안 많은 감독들로부터 현장을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었다. 긴장감 있는 삶을 벗어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고 했다. 사전에 듣고 학습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느낄 지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자유롭겠지만 다른 것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딱지면 어떨지는 모르겠다. 당분간은 힘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한 계획을 정해 생활하려고 한다. 그동안은 내 삶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보냈고, 이제부터는 내 자신과 약속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

-팀을 떠나기 전에 구단과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지난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어제 경기를 앞두고 시즌 마지막 경기라 될 수도 있다고 구단 관계자가 귀띔했다. 새 감독을 위해서 빨리 속소의 짐을 빼줘야 한다. 내가 살던 집도 최근에 이사를 해서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속소의 짐까지 빼서 정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텐데.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감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어준 구단이 가장 고맙다. 스태프와 선수들, 그리고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간이 되면 고마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할 생각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